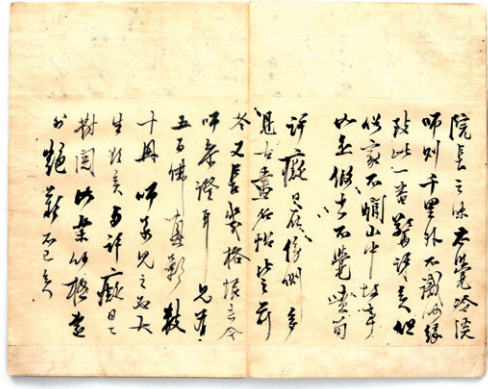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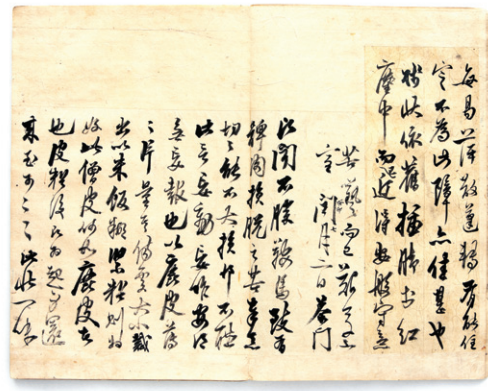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꿈에도 그리던 벗, 추사를 찾아 제주로 향했던 초의는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도움으로 잠시 관아에 머문 듯하다. 초의가 말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제주 목사의 배려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난생처음 말을 탔을 초의였으니 말안장에 불깃살이 해지는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사정을 익히 알았던 추사였기에 초의에게 말 타는 요령을 알려주었겠지만 너른 대지를 가르며 달리는 호연한 기상, 아마도 그는 추사의 충고를 잊었던 것은 아닐까. 1843년 7월 2일에 쓴 추사의 편지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말안장에 다친 초의에게 처방을



《벽해타운첩》에서 확인된 추사의 편지. 처음 말을 타 알아누운 초의에 대한 추사의 연민이 느껴진다.

此僧皮何如鹿皮者也 皮粘後 即爲起身還來至可至可 此狀一味苦熱而已 艱草不宜 癸卯閏七月二日 茶門

院長之味太覺冷淡 師則千里外 不識何緣致此一番驚訝矣 但俗客不嫻山中故事 如是做去 不覺噴筋 許痴日在傍側 多見古畫名帖 比之前冬 又長幾格 恨未令師參證耳 見有五百佛眞影數十冊 師若見之 必大生欲矣 與許痴日日對閱此樂何極 遠外 艷歎不已

《완당전집》(여초의) 18신에 수록된 이 편지는 《벽해타운첩》이 발굴된 후에야 그 연대가 밝혀진 것인데, 이는 초의가 표기 둔 간지(干支) 때문이다. 한편 말안장에 불깃살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던 초의는 일어나지도 못했던가보다. 추사가 “사슴 가죽을 아주 얇게 떼서 (이것을) 상처의 크기에 따라 잘라 밥풀을 짓어 붙이면 좋아질 것”라는 긴급 처방을 내려준 것,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거망동한 초의, 그의 아픔은 경거망동에 대한 업보라는 추사의 말은 초의에 대한 연민을 그리 표현한 듯하다. 한편 추사와 허 소치의 제주 일상은 “매일 제 곁에서 많은 고화명점을 보며 화삼매(畫三昧)에 몰두했으니 소치의 그림이 “지난해 겨울과 비교하면 또 얼마나 격조가 높아졌는지 그대와 함께 참증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 이란다. 더구나 오백나한진영첩 수 십 권을 참구했으니 제주시절 불교에 심취한 추사의 일상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스러울 뿐입니다. 오백나한진영첩 수 십 책을 보고 있는데 만약 그대가 보면 분명 크게 욕심낼 겁니다. 허 소치와 함께 날마다 펴보는 이 즐거움을 어찌 다 하겠습니까. 먼 곳에서 부러운 탄식을 그칠 수 없을 겁니다. 卽聞不勝鞍馬致有骨肉損脫之苦 奉念切切 能不大損耶 不聽此言 妄動妄作 安得無妄報也 以鹿皮薄薄片 量其傷處大小裁出 以米飯糊緊粘則爲好

“나의 시대적 고민은 불교의 사회적 실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우리는 선우 이사장)

1984년 해군 한 함대의 작전 상황실. 곧 있으면 전역할 한 장교가 상황실에 걸린 세계지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메르카도르 도법으로 제작된 세계지도의 중심에는 태평양과 인도가 있었다. 냉전시대 당시 인도는 제3세계 의장국이였다. 장교는 불현 듯 호기심이 들었다. “어느 체제에도 들어가지 않더니,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에 가야겠어.” 전역한 장교는 인도철학 전공으로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인도에 대한 호기심은 곧 불교학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는 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교학자가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열정적이며, 논쟁적이고, 사회에 날선 비판을 가하는 지식인. 바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우리는 선우 이사장)이다. 사실 불교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중 ‘조·성·택’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2002년 한국에 돌아와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맡은 조 교수는 불교학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펼치며 단숨에 한국 불교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문학단장,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을 맡으며 인문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자로 부상했다.

다양한 연구 성과... 상상력의 궤적 학자로서의 그의 궤적을 보면 단순히 불교 철학만을 전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연구의 층위와 폭이 다양하고 넓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초기불교의 연기론은 생태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8년 인문학계 강연에서는 ‘부다를 찾아서 늘고 다니는 상제보살을 통해 대승불교의 기원이 ‘무불시대 부다 찾기’에 있다고 논술했다. 또한 2011년에는 친일과 항일 이분법 속의 민족불교를 넘어야 한다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은 조 교수의 불교학이 단순한 텍스트의 이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저한 1차 텍스트의 이해를 토대로 역사, 사회, 문학, 철학 등 인문학 전반을 통섭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 교수의 이 같은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그는 전공 도서를 제외하고도 매일 평균 2-3권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다. 집중적으로 읽는 인접학문 도서는 따로 있다. 인터뷰 당시 가방에는 시집 한 권과 한병철의 《피로사회》가 들어 있었다.

초기불교, 대승, 민족불교 비판 등 전공을 넘나드는 학계의 ‘팔방미인’ ‘인문학으로 불교 읽기’ 집필 계획

올해 1월 우리는 선우 이사장 취임 20, 30대 희망운동 ‘청년부다’ 추진

불교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 해야 “불교적인 종교 간 소통 연구할 것”

인접학문 교수와의 교류도 조 교수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시절 ‘근대’를 주제로 매주 월요일 80명의 학자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다양한 학문들이 바라보는 근대의 풍경 속에 불교는 없었고, 그는 근대의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받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논문이다. “불교학은 종합적 학문입니다. 불교 안에는 철학, 사상사, 문헌비평, 미술사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불교학은 종합적 인문학으로서 사유해야 합니다. 평소의 독서량을 늘린다면 현대 산업사회에 어떻게 이뤄져 있고, 그로 인한 문제는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를 세상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학자이고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의 자세, 불교의 역할 지식인이 가져야 할 제1책목을 ‘실천’으로 꼽는 만큼 조 교수의 날선 비판은 사회와 불교계 전방위로 이뤄져 왔다. 불교계의 황우석 옹호는 불교계의 콤플렉스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있다는 지적부터 깨달음 지상주의와 그에 따른 신비화에 대한 비판, 이명박 정부가 웅산 참사와 촛불집회에 대한 민의를 헤아리지 보다는 정략에 사로잡혀 있다는 시국 선언 동참 등은 조 교수가 말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모습들이었다. 그가 보는 불교도는 소수자가 배려 받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와 닮았기 때문이다. 조 교수가 강조하는 불교의 역할도 별반 다르지 않다. 21세기 대안 문명으로서의 불교, 노사·세대·남

인도불교, 안목을 바꾸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 교수가 학문의 길에 뜻을 둔 것은 아니다. 부산으로 유학해 불교 종립 해동중학교에 진학한 조 교수는 처음으로 교육으로서의 불교를 배웠다. 부처님 전생담인 《자타카》를 알아갔고 삼귀의와 사홍서원 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철학 중 동양철학은 공부하지 않겠다고 조 교수는 마음을 먹었다. 직업으로 교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대학도 고려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다. 전공 공부보다는 인문·사회 서적을 파고들었다.

1984년 7월에 제대한 조 교수는 그해 9월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전공 석사과정으로 입학한다. 거기서 조 교수는 이기영 박사를 만났다. 이기영 박사는 불교 공부를 할 것을 권했고, 조 교수는 이에 응했다. 학문적 동반인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김성철 동국대 교수를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이들은 한국불교를 넘어서는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한계를 느낀 조 교수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UC버클리대학교에 진학한 조 교수는 인도 초기 대승불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교수는 인도 초기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사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인도 초기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놀란 점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문 경전의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인도의 대승 경전들은 거의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후대로 가면서 쓰여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 초기 대승 경전을 한역(漢譯)한 경전들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연구하니 불교사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지식인

박사 학위를 마친 조 교수는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에 임용된다. 그곳에서도 그는 2000여 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탁월함을 보였다. 하지만 조 교수는 무언가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조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근대에서 후가를 나갔는데 귀대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미국과 유럽 교수들은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 교수들은 지식인으로서 대중의 기대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학을 선택한 이유는 불교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외국인 교수 생활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모교인 고려대에서 교수직을 제안했을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2002년 한국으로 온 조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년 불상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찬수 강남대 교수 북적 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택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2008년 인문학계 강연에서 조성택 교수가 ‘대승불교의 기원이 무불시대의 부다 찾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이색 LED전구		전통 LED전구		주름 등		영가 등
	칼럼모자 LED전구		영가 등		영가 등		영가 등
	공 단 등		영가 등		주름 등		영가 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흥은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성택 교수는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주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철학회 편집이사과 우리는 선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북 등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결국 '불교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불교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인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망과 성장의 피로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한 압축적 성장을 한 한국 사회는 분야별 갈등이 매우 첨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는 대안문명으로,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단순·소박한 스님의 삶이며, 사상적으로는 '화쟁'입니다. 특히 개시개비(偈是皆非)의 화쟁사상은 시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젊고 생기있는 불교를 위해

최근 조 교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중이다. 바로 불교운동가로서의 삶이다. 조 교수는 올해 1월 재가불교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선우'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우리는 선우'를 통해 '젊은 불교'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것이 '청년붐' 운동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신 때가 35살이었고 당시 제자들도 대부분 20~30대였습니다. 젊고 발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불교는 개혁적 종교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가 충만한 젊은 종교입니다. 한국 불교는 너무 무겁고 엄숙하죠. 이제 젊고 생기있는 불교를 만들자는 게 '청년붐' 운동의 취지입니다."

조 교수가 말하는 '청년붐' 운동은 20~30대 포교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교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 계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불교의 역할론적 성격이 강하다.

"현재 20~30대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명은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불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좋은 마음과 남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곧 불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 불자와 새학기 대학생에게 조성택 교수가 권한 책들

	<p>투게더 리처드 세넷 저/ 김병화 역/ 현암사</p> <p>이 책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기초적인 인간의 공존 양식을 그리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종교 개혁으로부터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당대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진화를 설명하며, 현대는 경쟁 시대가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주장한다.</p>		<p>아메리칸 그레이스 로버트 D. 퍼트남, 데이비드 E. 캠벨 저/ 정태식, 안병진, 정종현 역/ 페이퍼로드</p> <p>이 책은 미국의 종교와 공공 생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이 어떻게 종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종교가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통합시키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p>
--	---	--	---

전법일기

“절 장학금을 꿈에 투자 하겠어요”

어린이들이 쓴 편지

편지가 왔다. 선생님이 직접 가져온 커다란 봉투에는 예쁜 분홍색 종이를 오리고 풀로 붙여 만든 편지봉투도 있고, 울룩불룩한 입체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 멋을 낸 것도 있다.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연필로 무지개를 그리고 그 속에 글씨를 써넣은 편지, 인쇄된 밑그림에 색색의 형광펜으로 장식한 예쁜 편지도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조심스레 가위로 봉투를 잘라 편지를 꺼낸다. 정성이 담백 담긴 편지를 상하게 해서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빼빼물 연필로 꼭꼭 눌러서 쓴 편지는 무려 신장이 넘는다.

처음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쁘다고 한다. 5학년 시은이는 "나는 친구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장난꾸러기 회장이야. 그런 내게 장학금이라니! 장학증서를 받으면서 너무 놀랐다. 보성선원에서 잘못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보았는데 내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다. 말로만 들어보던 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나는 사실 어리둥절하였다"라는 글로 나를 웃게 만든다.

장학금은 아이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 "평소 실적을 잘 안 하고 규칙을 잘못 지키는데 이렇게 큰돈을 받고 나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살펴보고"고 6학년 채연이는 반성의 글을 남긴다.

6학년 유진이는 어른스럽게 부모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는 "저번 장학금으로 학용품과 책을 샀다"며 작년에 받은 장학금의 용도를 밝힌 후 올해의 계획도 적었다.

"엄마는 도와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공



그림·박구원

부도 더 열심히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고 쓴 것은 규리다. 규리 엄마는 장학금 받은 걸 계기로 2학년인 아이의 마음을 다잡았나 보다.

2학년 규원이는 "선생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잘 들겠다"고 다짐한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조순(祖孫) 가정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를 언급할 수 없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짝한 마음으로 편지를 넘긴다.

가난은 아이들의 동심에조차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4학년 수찬이는 "안 그래도 장학금이 필요했는데, 저희집을 살려주신 분"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5학년 지은이는 "형편이 어려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부모님을 미워했다"고 고백한다. 가난한 부모는 죄가 없어도 자식의 미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현실이 슬프다.

얼마 되지 않는 장학금이 아이 인생을 변하게 할까만,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이들은 이 장학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6학년 오근이, 5학년 민지, 2학년 보배는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나를 장학생으로 추천하셨다"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생각이 깊은 아이들도 있다.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나눠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주인공은 5학년 문홍이와 3학년 은비다.

5학년 지은이는 "절에서 장학금을 쥐어주시니 내 꿈에 그 돈을 투자하겠다"는 아무진 포부를 밝히고서 장학금 받은 것을 계기로 "돈으로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봉사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며 봉사하는 삶에 관심을 갖는다.


매년 초파일이면 우리절에서는 인근 초등학교 두 군데에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액수가 적다. 나는 거창한 명분을 원치 않는다. 이 돈으로 사탕을 사먹어도 좋고, 예쁜 인형을 사도 좋다. 가난한 아이들의 감정을 잠시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인연을 맺어주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마흔 한 칸이 묵직해진다.



한복 스님(대)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WORLD BUDDHISM LEADER



108인 선정 고승들의 수행

미얀마에서 실시한 큰스님들의 7일간의 수행

미얀마 종교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일 국영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이르켰고 미얀마 연방승가회 닥터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의 격려속에 3사 7중 큰스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주관하는 의식 중에는 종교성 장관 내외 부장관 내외 차관 내외와 30여 국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성황의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성원해주신 전국의 큰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 (宗師, 大宗師 금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의 명칭과 마크를 사용한 명함을 사용하고 사칭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제보가 많습니디.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